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01
----------	------

발의연월일 : 2024. 9. 20.

발 의 자 : 김영배 · 조 국 · 김태년  
조인철 · 문금주 · 문정복  
이병진 · 송기현 · 이기현  
조정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 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

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3.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4.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u></p> <p><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u>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u></li> <li><u>2. 남북 간 연락망 등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u></li> <li><u>3.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u></li> <li><u>4.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u></li> </ol> <p>② <u>제1항에 따른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시행,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